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경선 레이스 돌입

오늘까지 이틀간 경선투표
무주 등 단수공천 3곳 제외
경선 앞두고 부안·장수 등
불참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 주자들간의 레이스가 25일 치열하게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이하 공관위)에 따르면, 도내 기초단체장 경선이 25~26일 이틀간 진행된다. 본선행에 오를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관위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경선을 단수공천 4곳, 2인 경선 지역 2곳, 3인 경선 지역 5곳, 4인 경선 지역 3곳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재심을 인용해 임실군수 경선이 2인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도내 경선지역은 1곳이 추가돼 11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구형보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사퇴했고,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제시장과 부안군수는 3인 경선으로 진행된다.

단수공천 지역은 황의택(무주)·전춘성(진안)·심덕섭(고창) 예비후보 3명이다.

한편, 민주당 도내 기초단체장 경선 레이스가 한참인 가운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유력후보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공천 잡음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인 도내 정치자정을 흔들리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무소속 열풍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에서 첫 오프된 장영수 장수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22일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김성수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경선후보로 포함됐지만 25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했던 유진섭 정읍시장,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군수에 나서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도 지난 24일 완주군민들에게 보내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전북도민과 완주군민의 부름이라면 응답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암시했다.

25~26일 진행되는 민주당 후보 경선 이후 지역별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면

민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전주시장 우범기, 유창희, 조지훈	군산시장 강임준, 문택규, 서동석	익산시장 정현율, 조용식, 최정호
정읍시장 이학수, 최도식, 최민철	남원시장 이상현, 최경식, 박준배	김제시장 정성주, 정호영
완주군수 국영석, 두세훈, 유희태	장수군수 이돈승, 양성빈, 최훈식	임실군수 한병락, 한원수
순창군수 권대영, 장종일, 최기환	부안군수 권익현, 김상곤, 김종규	

무소속 출마 선언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 (25일 현재)

- ▲무주군수-서정호
- ▲장수군수-장영수
- ▲순창군수-최영일
- ▲부안군수-김성수

서 무소속 후보들과 진검 승부도 예고된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는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와 함께,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북에서 무소속 단체장은 유기상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3명이다. 여기에 장영수 장수군수가 민주당을 탈당해 표면적으로는 4명으로, 이들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또한,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출사표를 내민 남원시장 선거, 최영일 전 도의원이 도전한 순창군수 선거까지 무소속의 정치지형 자체가 매가 되면서 도내 전역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은 27일 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는 후보들이 속속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호상 기자

특히, 각종 중앙 평가와 공모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한 것과 2020년 정부 뉴딜정책 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의 재해예방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해예방사업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적기에 조기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재해위험지 정비 올 1320억 투입

2019년 806억 대비
3년만에 514억원 ↑

전북도가 올해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인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26개소 1,320억원(국비 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7개소 806억원 대비 3년 만에 59개소 514억원이 증가한 사업비 기준 64% 대폭 증가한 규모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이다.

분야별로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6개소 235억원, ▲재해위험개천지구 정비 32개소 626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6개소 16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2개소 188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0개소 109억원이다.

최근 정부는 과거 복구사업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투자효과가 큰 재해예방사업 예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도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국비 확보에 발빠르게 대응 매년 꾸준히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각종 중앙 평가와 공모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한 것과 2020년 정부 뉴딜정책 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

- **가나다순으로 게재
- **현역인 경우 볼드체로 표기.
- **25일 오후 6시 기준.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